



알고 싶은 법률 상식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



김낙의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후(死後)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하여 두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의 사후 상속재산 등에 대한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언은 그 방법이 자유롭지 않고 엄격한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민법 제1065조)

유언의 방식에는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특별방식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일부, 전부를 타인이 쓰거나 타인에게 구수하여 필기시킨 것일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 유언을 하기 위하여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유언자의 의사에 일치된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만약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유언의 효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숙지를 한 뒤 유언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